

단체장이
바라본 하천

River & Culture



최 문순 | 강원도지사

강원의 물은 상생의 길로 흐른다.

자연과 환경을 바라볼 때 늘 떠오르는 말이 있다. 그것은 「침묵의 봄」을 지은 레이첼 카슨이 한 방송사에서 한 것으로 "우리 인류는 지금 역사상 유례가 없는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은 결코 자연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다. 우리는 미숙하고 유치한 자연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좀더 성숙한 눈으로 자연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 자신의 문제를 깨달아야 한다. 인간과 자연, 둘 중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정복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인간은 엄청난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일 따름이다."라는 구절이다.

효용성을 미덕으로 한 자본주의의 발달은 자연의 파괴를 불러왔다. 이에 대해 성장론자들은 파이를 키우기 위한 불가피한 결과였다고 하고 있고, 환경 보호론자들은 공생과 공존을 이야기하며 더 이상 파괴적인 자연훼손의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환경의 자본화는 전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물이라는 측면에 집중해 보면 몇 가지 현실적인 결과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UN(국제인구행동연구소, PAI)에 의해 지난 1990년도에 물 다소비 국가로 진입하였고 향후 2025년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었다. 전체적으로 물은 부족하지 않지만 가뭄 등 정작 필요할 때에는 물을

쓸 수가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는데 급격한 산업화(난개발)와 도시화(포장된 길)로 도시 내 불투수층의 증가와 함께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등으로 용수량을 감소시키고 있다. 더욱이 경제성장과 국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물 소비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위적 개발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2000년대 들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자연재해와 호우로 예기치 않은 물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강원도도 예외는 아니다. 홍수기엔 하천에 물이 넘치고 갈수기에는 하천에 물이 현저하게 적거나 건천화된 하천을 여기저기서 보게 된다. 이제 물은 인류 공존과 직결되어 있다.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국제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 된 것이다.

산 좋고 물 맑은 강원도라는 형용사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수식어다. 단순히 연상되는 이미지만이 아닌 실제로도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강원도는 한반도의 중심 강인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이면서 수도권 식수원의 절대 물량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원도민들은 청정상류로서 맑고 깨끗한 물을 하류에 보내주어야 하는 책임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강원도는 어느 지역보다 맑은 물 정제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로 물의 자정능력을 증대시키고, 고랭지 밭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저감사업을 진행하여 기운을 차린 하천에 열목어가 돌아오고 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관계자들의 오랜 노력으로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회복하여 건강한 원래 모습의 하천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동안 수질오염저감기금 조성 등으로 일선의 농가들에게 환경기초시설을 지원하는 등 도내 구석구석 산재한 오염원의 철저한 관리를 해온 결과이다.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총 30,296억원을 투자하여 도내 하천별 1a등급률은 73%를 차지하는 등 수계 상류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한다(사업내용 : 하수처리시설 47개 사업 2조 6,143억원, 생태하천복원 31개 사업 2,133억원, 비점오염저감사업 979억원, 개인오수 및 분뇨처리시설 등 1,041억원).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상류지역과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환경복원 문제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아주 면밀하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전 국민적 관심과 애정, 실천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노력의 성과들이 하나 둘 씩 나타나기 마련이다. 강원도는 이러한 근

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2008년부터는 한반도의 젓줄인 한강을 살리기 위하여 한강수계 5개 시·도와 함께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살가지 운동은 물과 생명, 그리고 강이 갖고 있는 문화를 강과 연결한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 가려는 민간과 광역단체의 발전적인 결합이라는 모범이 되고 있기도 하다(12년 9월 행정안전부는 한강 살가지 운동을 2012년도 지역특화 우수사업으로 선정).

우리나라는 그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50~60년 전 최빈국에서 OECD 가입과 함께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GDP도 3만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한강의 기적은 그냥 온 것은 아닐 것이다. 빛이 강한 만큼 그늘도 짙게 마련이다. 수도권 등 한강 유역의 발전과 상반하여 강원도는 맑은 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계 상류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도민들은 이러한 정책이 당연한 것이라고 묵묵히 받아들여왔다. 그것이 상류 유역 주민의 운명이라 생각하며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온 것이다. 이제는 누구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성장을 되돌아 봐야 할 때이다. 그동안 유역주민의 이러한 어려움을 보상해 주기 위한 전면적 대책이 실행되어야 진정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다고 할 것이다.

도내에는 257개 하천, 총연장 3,578km로서 수자원량은 22,680백만톤으로 이중 이용가능량은 11,279백만톤으로 집계되고 있다. 도민의 1인당 연간 물 소비 가능량은 9,803톤이나 그중 1%(108톤)만 쓰고 있으며 나머지는 그대로 흘러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강의 수량 총량에서 강원도에서 흐르는 물량이 65.7%를 차지하고 있으며, 팔당 지역 수질개선 기여율이 무려 30.7%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수질 보전과 수량을 확보해주는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류 유역 지역주민들은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다. 이제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본다. 강원도는 이와 관련한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시, 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생각이다.

물은 공기 다음으로 우리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생존의 필요조건이 된다. 모든 생명의 시원은 물이라고 한다. 따라서 물이 없다면 인류는 물론 모든 생명은 그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지만, 물은 지금도 아래로만 향하여 비인 곳을 채우고 막힌 곳은 에둘러 흘러간다. '상선약수·善若水'라는 논어의 유명한 구절은 이러한 물의 미덕을 높이 노래한 것이다. 사람이 살면서 매일 마시고 버려지는 물은 자연의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진다. 비가 내리고 하천에 물이 흐르면 사람은 여과과정을 통해 마시고 또다시 그 물은 하천으로 흘러들어간다. 이로서 물은 곧 생명이라는 자연의 원리로 되돌아간다.

우리가 바라보는 물의 마음이 이것이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재생되는 자연의 한축으로 인간의 욕심을 받아주고 묵묵히 스스로를 치유해 가는 물은 살아 숨 쉬는 자연사의 박물관이자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점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어머니이자 생명의 시원인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인류는 이러한 물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날선 삼과 패악만을 일삼았을 뿐이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인류가 물과 하천과 강에 대해서 보답해야 하는 때가 온 것이다. 지금까지 상처를 주어 왔으니 이를 치유하고 복원하자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이 될 것이다. 강을 살리는 것이 곧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미래를 이어가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강원도는 남과 북이 강원도라는 지명을 같이 쓰는 것처럼, 금강산에서 발원하는 북한강이 휴전선을 통해서 남한강과 합류하여 한강이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한다. 남과 북이 막혀 있는 현실에서도 물 만큼은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있다. 평화의 강, 생명의 강, 한강이 한반도의 성장과 미래를 걸고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모쪼록 그간의 과도한 성장주의 관점을 되짚어 진중하고 심도 있게 상·하류가 나눔과 상생의 정신으로 영킨 실타래를 풀어 나가기 를 기대해 본다. 그것이 지금도 유유히 우리네 삶을 위무하며 흘러가는 생명의 강물 위로 반짝하고 별빛이 반사하는 까닭이 될 것이다. 🌍